

# 夏目漱石에 있어서 近代의 問題

—小説 『こころ』를 中心으로—

金 鸞 姬\*

## 目 次

- |                |                   |
|----------------|-------------------|
| I. 序言          | IV. 自殺과 明治精神 그 繼承 |
| II. 明治時代와 近代化  | V. 結語             |
| III. 個人主義와 罪意識 |                   |

## I. 序 言

小説家·英文學者로서 東西의 教養을 폭넓게 지닌 夏目漱石(なつめそうせき)의 文學世界는, 近代的 自我와 苦惱의 世界를 具現하는 것으로 一貫되어 있다. 人間의 根源의 世界를 깊이 凝視하며, 거기에서 近代人의 苦惱와 孤獨의 모습을 描寫하고 있는가하면, 人間本質에 內在한 根源惡으로 빚어지는 罪의 問題까지 言及하고 있다. 그만큼 漱石의 文學안에는 近代文學이 지니는 特質과 內容이 갖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漱石은 明治維新이 일어나기 前年인 1867年(慶應3年)에 태어나서 1916年(大正5年)에 그 生涯를 마쳤는데, 日本 近代化의 途上이라는 激動의 時期를 함께 산 셈이다. 外勢의 壓力<sup>1)</sup>에 의한 日本의 文明化는 급속도로 이루어져갔고, 그 나름대로 成功을 거두었다. 國家統一 및 教育의 普及, 和魂洋才<sup>2)</sup>에 의한 先進文明의 섭취, 富國強兵策<sup>3)</sup>에 의한 淸日·러일戰爭의 勝利, 그야말로

1) E. O 라이샤워, 『日本史』, 鄭秉學譯 (서울:探究堂 1982), pp.109~111 참조.

2) 日本固有의 精神인 야마토다마시(大和魂)을 근간으로 해서 西洋의 文物을 받아들이는 當時 日本의 外來文物 受容태도이다.

3) 明治維新은 日本을 西洋列強의 대열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이었던 만큼, 富國強兵을 그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 人文大學 助教授

「自由와 獨立과 自我로 채워진 時代」<sup>4)</sup>였다. 그러나 漱石은 大部分의 作品속에서 이를 批判的 角度에서 表現하고 있는데, 그의 文學을 文明批判 文學으로 보는 것은 이에 基因하는 것이다. 漱石은 明治時代의 이러한 變革에 대해서, 人間의 內面的 變革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矛盾이 發生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近代化를 가져오는 根本精神 및 自我의 確立, 民主意識이 充滿되지 않은, 外形上的 近代는 人間을 便利하게 해주는 것 以上으로 苦痛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西歐社會가 百年에 걸쳐 이룬 課業을 日本은 불과 十年으로 短縮시켜서 遂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隨伴되는 不作用이 內面的으로 深刻하게 胚胎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5)</sup> 作品 「こころ」에서도 그러한 時代的 矛盾을 寓意的·象徴적으로 描寫하고 있다.

漱石 晩年の 作品<sup>6)</sup>에 속하는 小説 「こころ」는 後期 三部作의<sup>7)</sup> 마지막 作品으로서, 大正3年 4月20日에서 8月11日까지 朝日新聞에 百回以上에 걸쳐 連載되었다. 그 構成을 보면, 上 「先生と私」·中 「兩親と私」·下 「先生と遺書」의 세 部分으로 되어 있는데, 몇개의 短篇을 모아서 하나의 長篇을 이루는 그러한 小説技法을 쓰고 있다. 그중 下部分인 「先生と遺書」 쪽에 主題에 있어서의 무게가 가장 걸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分量으로 보아도 下部分은 앞의 두 部分을 합친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 作品에서도 漱石은 그 特有的 特殊한 人物造形을 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이러한 人物들과 그에 얽힌 事項인 罪·我執의 문제를 時代的 特性和 더불어 考察해 보고자 한다.

「こころ」의 테마는 흔히, 友情·罪·告白·贖罪 등의 視點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作品은 깊이와 批判에 있어서 銳利함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明治精神(近代精神)과 前近代의 精神의 壓力간의 葛藤, 그것의 自覺的인 行爲가 하나의 罪意識으로서 나타나는 時代性的 凝視, 그리고 「K」 및 「先生」의 自殺로 象徴되는 時代的 運命을 살펴 봄으로써, 近代文學에서 現代文學으로 移行하는 辻점에 서있는 漱石文學의 理解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 II. 明治時代와 近代化

漱石에게는 「外發的인 開化」<sup>8)</sup>에 의한 先進國民으로서의 矜持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가 英國留學時, 西歐人들의 背後에 숨은, 日本人에 대한 우월감에 분노를 느꼈듯이, 隣近 後進國民에 대한 日本人의 우월의식도 용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淸日戰爭後의 日本의 융성 및 文明開化

4) 夏目漱石, 「こころ」, 『夏目漱石集(1권)』(東京:築摩書房, 昭和36), p.188.

5) 夏目漱石 「現代日本の開化」(夏目漱石集1卷) p.394.

“西洋で百年かかつて漸く今日に發展した開化を日本人が十年に年間をつづめて……百年の經驗を十年で上滑りもせず遣いとげようとするならば年限が十分の一に縮まる丈わが活力は十倍に増さなければならぬのは……容易く首肯する所である。”

6) 漱石의 晩年の 作品으로는 보편적으로 「こころ」 「道草」 「明暗」을 들고 있는데, 「こころ」는 作家가 죽기 2年前의 作品이며, 「明暗」은 未完인 상태로 남겨졌다.

7) 「行人」, 「彼岸過迄」 「こころ」를 後期三部作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前期三部作으로는 「三四郎」 「それから」 「門」이 있다.

8) 漱石은 「現代日本の開化」속에서, 日本의 開化를 '外發的開化'라 表現하고 있는데, 유럽의 근대

政策의 成功이라는 現象에 비추어보며, 그 때문에 犠牲된 中國人の 存在를 그의 腦裡에 떠올려야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漱石은 自己 및 日本國民을 所謂, 文明開化의 加害者라는 側面에서 보는 눈이 있었다. 漱石의 獨自性이란 무엇보다도 時代의 問題를 自己內部的 問題와 거의 對等한 무게로 받아들여, 그 自身の 內部에 明治 文明開化가 內包하는 矛盾과 罅을 分明히 認識하면서, 그 處理와 解決을 畢生의 文學的 모티프로 안고 살았다는데 있을 것이다. 文明開化는 日本의 近代化를 가져왔고, 그것은 곧 西歐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 西歐化의 先頭에 설 수밖에 없었던, 當時 知識階級の 한사람으로서의 作家自身을, 그 近代化의 過程에 있어서 一個의 加害者로 보는 눈과 心情을 지니고 있었다.

『こころ』에서의 漱石의 日本文明論 即, 文明開化에 對處하는 態度 및 思想은 明治聖代의 終焉이라는 觀念을 背後에 지니고 있다. 日本의 近代가 文明으로서 짊어지고 있는 「文明苦」를 作家 自身の 個人的 內面的 苦惱로 받아들여, 이러한 問題意識을 『こころ』에서 등장人物 「先生」· 「K」· 「私」를 통해 具現하고 있다. 『こころ』는 觀察者的인 「私」라는 副人物을 登場시킴으로써 作品 全體로서의 統一을 유지하고 있다. 작품 처음부분에서 「私」는, 여름방학을 맞아 鎌倉에서 휴가중인 친구의 편지를 받고, 그곳에서 친구와 合流하게 된다. 며칠을 친구와 함께 지내던 중, 친구의 母親이 危篤하니 빨리 歸家하라는 電報를 접하게 된다. 이때 친구가 그 重要한 內容의 電文을 信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실은 내키지 않는 婚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分明하며, 자신은 그것때문에 放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鎌倉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知識人과 兩親」 내지는 「知識人과 地方生活者」 사이의 乖離를 發見할 수 있다. 친구가 떠나고 結局 혼자 남겨진 「私」는 어느날 海邊에서 西洋人과 함께있는 「先生」과 邂逅하게 된다.

「私は單に好奇心の爲に、並んで濱邊を下りて行く二人の後姿を見守つてゐた。すると彼等は眞直に波の中に足を踏み込んだ。さうして遠淺の磯近くにわいわい騒いでゐる多人數の間を通り抜けて、比較的廣々した所へ來ると、二人とも泳ぎ出した。彼等の頭が小さく見える迄沖の方へ向いて行つた。… 中略…

先生の態度は寧ろ非社交的であつた。一定の時刻に超然として來て、また超然と歸つて行つた。周圍がいくら賑やかでも、それには殆んど注意を拂ふ様子が見えなかつた。先生はいつも一人であつた。」<sup>9)</sup>

「私」의 눈에 비친 先生의 모습은, 非社交的이고, 群衆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寓意을 끄집어 내보면, 西洋人으로서 代表되는 西洋文物, 즉 模倣的 輸入文化, 그것을 積極적으로 받아들이는 役割 해운 知識人으로서 代表되는 「先生」, 그 둘은 群衆과 더불어 있지 않고 먼 바다에 떨어져 있다. 民衆속에 浸透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輕薄한 文化의 이미지, 日本文化를 歪曲시킨 그런 不快한 雰圍氣를 자아내고 있다. 「私」는 젊은 知識人이며, 先生과 같은 部類, 또는 精神的 同族關係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화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국민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 日本의 근대화는 少數 엘리트 집권자들의 면밀한 계획하에 위에서, 아래(국민)로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 『こころ』, p.178.

「血の中に先生の命が流れてゐる。……新しい命が宿る。」<sup>10)</sup> 「何處かで先生を見たように思うけれども何うしても思ひ出せない。」<sup>11)</sup>

라는 血緣이 아닌 피의 흐름이 적혀 있다. 「先生と私」에서 「私」의 先生에로의 傾倒는 孤獨한 知識人에게서 宿命을 느끼는 또 하나의 孤獨한 靈魂의 像이다. 作家는 이 두 사람의 邂逅에 꽤 많은 分量을 할애하고 있는데,

「先生は何時も靜であつた。ある時は靜過ぎて淋しい位であつた。私は最初から先生には近づき難い不思議があるやうに思つてゐた。それでゐて、何うしても近づかなければ居られないといふ感じか、何處かに強く働いた。斯ういふ感じを先生に對して有つてゐたものは、多くの人のうちで或は私だけかも知れない。然し其私丈には此直感が後になつて事實の上に證據立てられたのだから、……それを見越した自分の直覺を、とにかく頼もしく又嬉しく思つてゐる。人間を愛し得る人。愛せずにはゐられない人。それでゐて自分の懷に入らうとするものを、手をひろげて抱き締める事の出来ない人。是が先生であつた。」<sup>12)</sup>

知識人の 孤獨한 모습을 향해서 宿命적인 힘에 의해 끌려가는 또 하나의 靈魂이 있다. 그 孤獨은 民衆과의 隔離, 學問이 知識人과 民衆一般 사이에 넘지 어려운 障礙를 形成하는데서도 기인하고 있다. 『こころ』안에는 이러한 孤獨이나 적막함이 全編에 흐르고 있으며, 民衆과 知識人 사이의 배우기 힘든 거리감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大學卒業에 가까와진 學生인 「私」는, 卒業後 뭔가 해야겠다는 意慾이 없다. 「先生」역시 弟子에게, 就職에 대해서는 일체 言及하지 않는다. 아예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反面, 「私と兩親」에서의 父親은, 옛 慣習에 익숙해 있는 시골사람 즉 庶民象으로 描寫되어 있으며, 作品중의 「先生」과 對照를 이룬다. 父親은 아들의 大學卒業을 대견해하며, 자랑으로 까지 여긴다. 그리고 어서 就職하여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父親은 시골풍의 잔치를 베풀어 손님들을 招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父親의 態度에 대해 「私」는, 자신의 卒業은 대단한 일이 아닌 當然한 일이며, 父親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우스꽝스럽다고 여긴다. 이것은 傳統과의 乖離이며, 「無感動」으로 特徵지을 수 있는 근대 知識人の 모습이다. 知識人과 庶民生活, 또는 地方生活者와의 거리를 具體적으로 描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 近代를 特徵할 수 있는 輸入文化가 단순한 輸入文化이며, 無反省的이어서, 이렇듯 傳統秩序로부터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先生」을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父母의 遺産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徒食者이다. 漱石의 모든 作品에는 明治時代의 새로운 學問을 받아들인 知識人の 모습이 高等遊民으로 描寫되고 있다. 先生도 그러한 人物중의 하나로서, 그는 過去의 한 事件의 結果에 의해 倫理的인 苦惱에 차있는 그러한 像을 지니고 있다. 끊임없이 現在의 그를 威脅하는 可恐스런 힘이 그의 内部에 도사리고 있으며, 結婚의 幸福 그것은 積極적으로 破壞되

10) 前掲書, p. 195.

11) 前掲書, p. 179.

12) 前掲書, p. 181.

어 버린다. 자기 內部에 있는 誠實인 人生의 眞實을 구해서 험난한 여행길을 재촉하고 있다. 『こころ』에서 結婚 또는 戀愛가 重要한 問題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生活空間에 있어서 相對的인 中心을 形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苦惱하는 近代人을 描寫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할 수 있다. 近代社會란 個性을 發達시키는데 泯沒해 왔다. 에고이즘은 近代人을 더욱 苦惱스럽게 했고, 無力하게 만들어버렸다. 西歐文化를 그토록 積極的으로 受容했고, 그 自身 그 受容의 담당을 해 온 한사람인 것이다. 그 文化가 얼마나 歪曲되어 있는가. 外形上의 國家發展이 人間의 內部를 얼마나 상처입히고 있는가 하고 詰究하는 作家의 意識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近代의 產物로서의 學問을 했기 때문에 非社交的이 되었고, 現實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寓意를 추출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近代의 知識人의 生活에 대한 漱石의 銳利한 反省으로 把握해 볼 수 있겠다. 漱石의 以前作品에서<sup>13)</sup> 볼 수 있었던 近代人의 孤獨에 대한 優越意識은 찾아볼 수 없으며, 깊은 悔恨의 모습이랄까, 懺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文明의 被害者인 同時에 加害者이기도 하다는 倫理的 立場인 것이다. 잘못된 學問 歪曲된 文化 때문에 친구를 背反하고, 故郷을 떠났고, 일체의 傳統으로 부터, 民衆으로부터 떨어져 孤獨한 生을 보내야만 하는 者의 寂寞함인 것이다. 自業自得인 셈이다. 여기서 作家는 時代性과 더불어 人間의 根源惡을 내보임으로써 作品을 複雜하게 이끌고 있다. 罪愆함과 同時에 運命的으로 움직일 수 없는 人間이 되어버린者, 그 罪意識이 없더라도 社會的으로 不必要한 存在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我執」이라는, 人間本質에 內在한 根源惡인 것이다. 漱石의 人間性에 대한 否定的인 視線은 스위프트와<sup>14)</sup> 자주 비교되고 있다. 그 自身 「스위프트와 厭世文學」이라는 英文學 評論을<sup>15)</sup> 쓴 바 있으며, 여기서 漱石은 人間에게 厭世感을 일으키는 要因중의 하나로서 正義心을 들고 있다.<sup>16)</sup> 自己自身에 對한 誠實 및 正義心은 世上과 기묘한 對立의 벽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닐런지? 이처럼 『こころ』는 現象으로서의 多面性, 뒤앙스의 複雜함을 伏線으로 깔고 있다. 단순함에서 복잡함을 느끼는 作家의 感受性의 敏感과 함께 人間 그 自體에 對한 批判的 吟味를 使命으로 해 온 漱石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피하기 어려워 宗教의 方向을 志向하지만, 人間이나 그 生活의 歪曲의 根源을 根本的으로 社會惡의 問題를 돌리고 있는 듯이도 보인다. 西洋文物의 잘못된 受入方法이 禍根인 것이다. 不必要한 存在的인 近代知識人의 本然의 姿勢에 대한 問

13) 「眞美人草」, 「行人」 등의 作品에서 보이는 知識人의 고독은, 다분히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선택된 者들의 숙명적인 고독이라는 전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14) 英國의 小說家, Jonathan Swift (1667~1745)를 말하며, 漱石의 作品에서 보이는 文明批評 및 人間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스위프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15) 「文學評論」에 수록되어 있는데, 「文學評論」은 第一篇 「序論」, 第二篇 「18世紀의 狀況一般」, 第三編 「에디슨 및 스틸의 常識文學」, 第四篇 「스위프트와 厭世文學」, 第五篇 「포우프와 소위 人工派의 詩」, 第六篇 「다니엘 데포우와 小說의 組立」의 여섯편으로 이루어진 塔견과 독창에 찬 英文學 評論書이다.

16) “彼は比較的潔白な男である。正しき人である。自分の利害を離れて常に公憤を抱いた人である。斯様な人が政治界などの内幕を見たらば不愉快を感ずることが多いに相違ない。…… スキフトに至つては、何時でも一定不變の態度を以て物を見てゐる。何時でも不満足と云ふ消極的の態度を取つて……”

『夏目漱石集』3권 「스키프트와 厭世文學」 p.p. 380-381.

題가 어느덧 人間 一般의 根源的인 問題로 飛躍해버린 느낌이 없지 않다. 漱石은 일찌기 東洋의 學問인 漢學만을 文學으로 느끼며 成長해 왔으며, 그것으로 인해 英文學에 대한 懷疑가 컸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7)</sup> 이러한 漱石이기에 東洋的 得道의 方法에 理想的 價値를 두는 것처럼 作品을 이끌고 있는 듯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여겨진다. 東洋的인 것에 故郷 및 鄉愁의 이미지를 附與하고 그리하여 새로 流入된 西歐文化를 禍根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 Ⅲ. 個人主義와 罪意識

漱石은 一生을 통해서 에고이즘의 確立 및 그것이 지니는 虛無的 性格과의 均衡의 問題로 苦惱해 왔다. 모든 것에 있어서 根源的으로 把握하고자하는 漱石은 '에고이즘'이란 것의 本然의 모습을 作品속에서 表現하고자 애썼다. 『こころ』에서는 叔父의 에고이즘이 조카인 先生의 財産을 橫領하게 하고, 先生으로 하여금 人間 不信者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狀況下에서, 先生의 에고이즘이 친구인 K를 自殺로 치닫게 한다. 이렇듯 에고이즘을 追窮해 가는 도중에, 깊은 孤獨感과 焦躁속에서 苦惱하는 近代 知識人의 모습을 具現해 왔다. 漱石은 에고이즘안에서 人間의 罪의 問題, 內面的 我執의 悲劇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人間으로 부터 永遠히 떨어질 수 없는 에고이즘의 本質을 나타냄으로써 그 안에 있는 人間의 孤獨과 苦惱를 迫眞의 筆致로써 形象化하고 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漱石의 文學은 人類的이며 人間的인 性格을 지니게 된다.

이 에고이즘은 近代의 產物이다. 文明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個性을 발달시켜 놓았다. 近代化의 한 傾向인 資本主義는 權力과 金力을 志向하게 했다. 漱石은 「私の個人主義」<sup>18)</sup>라는 주제의 강연을 學習院에서 한 바 있는데, 2년간의 런던유학의 체험을 집약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今迄は全く他人本位で、根のない萍のやうに、其所いらをでたために漂よつてゐたから、駄目であつたといふ事に氣が付たのです。……私が獨立した一個の日本人であつて、決して英國人の奴婢でない以上はこれ位の見識は國民の一員として具へてゐなければならない上に、世界に共通な正直といふ徳義を重んずる點から見ても、私は私の意見を曲げてはならないのです。……それから文藝に對する自己の立脚地を堅めるため、文藝とは全く縁のない書物を讀み始めました。……私は此自己本位といふ言葉

17) “文學とは「左國史漢流」の「漢籍」のようなもの”あるか、陶淵明流の風雅のたしなみであつて、はじめ英文學に期したのもまたかくの如しであつた。……卒業せる余の胸裏には何となく英文學に欺かれたる如き不安の念あり。”

實方清, 「夏目漱石文藝辭典」(東京, 清水弘文堂, 昭和47年) p.46.

18) 1914年(大正3年)11月25日に 있었던 강연으로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人間이 지녀야 하는 외로운 道德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自己 모두 個人으로서의 生活이 불가능하다. 『こころ』에서는 세상에서 격리된 「先生」이 묘사되고 있다.

を自分の手に握つてから大變強くなりました。彼等何者そやと氣概が出ました。…… 其時私の不安は全く消えました。私は輕快な心をもつて陰鬱な倫敦を眺めたのです。」<sup>19)</sup>

이것은 漱石文學의 出發點이기도 하나, 人格을 갖추지 못한 者가 自他の 구별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개성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惡의 우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自己의 個性을 확장시켜 自己本位の 個人主義의 立場을 고수함으로써 그 個人이 幸福해 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他人의 個性과 충돌하게 될 때 他人을 犠牲시킬 수도 있다.

「第一に自己の個性の發展を仕遂げやうと思うならば、同時に他人の個性も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ふ事。第二に自己の所有してゐる權力を使用しやうと思ふならば、それに附隨してゐる義務といふものを心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ふ事。第三に自己の金力を示さうと願ふなら、それに伴ふ責任を重なければならぬといふ事。つまり此三ヶ條に歸着するのであります。」<sup>20)</sup>

이와 같이 漱石은 近代가 가져다주는 個性의 發達 및 自己本位の 立場이 그 個人의 영역을 벗어나서 他人의 個性과 맞부딪뜨렸을때를 고려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こころ」에서는 文明이(또는 근대화가) 온갖 방법으로 個性을 發達시켜놓고서, 다시금 온갖 수단으로 그것을 蹂躪하려고 한다는 近代 個性의 悲劇을 그리고 있다. 卽 近代의 病廢에 대한 아이러니칼한 示唆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同宿하고 있는 친구 「K」의 愛人을 빼앗고, 그 때문에 先生 自身 苦惱와 더불어 살다가 自殺하게 된다는 運命 悲劇으로써 「こころ」는 전개되고 있다. 「K」라는 孤獨한 친구를 진심 어린 友情과 好意의 發路에서 데려온다. 그리고 先生은 高等遊民으로서<sup>21)</sup> 金力이 있기에 K를 돌볼 수 있었다. 하지만, 自身이 흠모하는 女人인 하숙집 딸에 대해 「K」또한 戀情을 품고 있음을 알게되자 견딜 수가 없다. 아이러니칼하게도 利害關係가 分明해진 極限狀況下에서 人間의 道德性은 人間本性에 內在한 根源惡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것은 作家의 人間性에 대한 絶望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自己 내면의 성질에 의해 살아왔던 先生의 삶은 「死んで生きて行く」<sup>22)</sup> 라는 余生이 되고 만다. 他人의 個性의 深淵을 無視해 버린 人間性에의 불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無意識의 僞善에 대한 처절한 보상인 것이다. 自己의 戀愛를 위해서 한 치의 妥協도 없는 貫徹은, 自己를 살린다고 하는 個人主義 論理의 貫徹은, 궁극에 있어서 他人의 自我를 犠牲해야 하는 前提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近代의 倫理 그것이 內包하는 矛盾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先生의,

19) 「こころ」, p. 401.

20) 前掲書, p. 405.

21) 처녀작 「吾輩は猫である」에서 시작되어 「虞美人草」의 甲野, 「それから」의 代助, 「彼岸過迄」의 松本에 그 系譜를 두는 漱石 全作品의 主人公들인 近代知識人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기력하고 우울·병적인 苦惱와 孤獨의 모습을 하고 있다.

22) 「こころ」, p. 269.

「私はただ人間の罪といふものを深く感じたのです。」<sup>23)</sup>

라는 罪의 意識에는 自己内部에 介入한 他人에 걸리는 罪라는 것을 捕捉할 수 있다. 「自由と獨立と共に充ちた現代」<sup>24)</sup>에 태어난 人間에 있어서, 피하기 어려운 犠牲으로써 「孤獨感」이 떠돈다.

「戀は罪惡ですよ。解つてゐますか。」<sup>25)</sup>

先生은 絶叫한다. 「こころ」에서의 根源惡의 發現은 叔父의 物慾, 「先生」의 질투라는 것을 매개로 하고 있다. 어떤 人間에게는 그런 狀況이 주어지지 않은채 지나갈 수 있으나, 거기에는 根源惡 自體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一步 前進해서 생각해 볼 때, 「先生」은 이윽고 「K」의 죽음이 결코 「失戀」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先生自身처럼, 단 혼자서 孤立無援한 世界の 孤獨者가 取할 수 밖에 없는 結果라는 論理에 도달한다. 戀愛라고 하는 극히 個人的인 感情의 貫徹 自體가 卑劣한 「利己心」의 發現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先生」의 경우, 그 根底에 自殺 以前の 「K」가 示唆한 옛 武士的인 高潔에 대비되는 痛烈한 羞恥感이 蘇生했을 것이다.

「おれは策略で勝つても人間としては負けたのだといふ感じが私の胸に渦巻いて起りました。私は其時さぞKが輕蔑してゐる事だらうと思つて、一人で顔を赤らめました。然し今更Kの前に出て、恥を掻かされるのは、私の自尊心にとって大いな苦痛でした。」<sup>26)</sup>

여기서 「K」는 그 분위기로 볼때, 스토익하며, 精進의 모습을 늘상 지니고 있는 明治의 精神을 內包하고 있다. 이것은 「先生」의 時代精神에의 殉死와 연결된다. 先生은 乃木대장의 殉死를<sup>27)</sup> 계기로 하여 明治精神에 殉死하고 있다. 여기서 重要な 것은 古風의 儒教 道德에 이어지는 罪意識을 媒介로 함으로써 明治의 文明開化가 가져온 近代的 道德이 內包하는 矛盾에 接近했으며, 人間の 存在 깊숙히 潛在해 있는 深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先生이 「K」의 죽음에 대한 眞實에 直面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戰慄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는 그 自身에 있어서는 새로운 内部失體의 發見이었다.

自己의 「自然」을 관찰하고 그 정당성을 主張하는 것이 어째서 「남」을 상처입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漱石文學 全體의 核心이 있는 것이다.<sup>28)</sup> 人間은 異質的인 對立者와의 對決을 통해서

23) 前掲書, p. 269.

24) 前掲書, p. 188.

25) 前掲書, p. 263.

27) 乃木希典(のぎまれすけ)(1849~1912): 陸軍大將으로서, 러일戰爭에서 功績을 세웠다. 明治天皇이 逝去하자, 뒤따라 大將 夫妻가 殉死하는데, 明治의 終焉을 상징하는 두 事件인 셈이다. 漱石와 鷗外는 작가의 意識深層에서 共鳴한 各各의 관련作品을 남기고있다.

28) 『文藝讀本』(夏目漱石 I) 東京: 河出書房, 昭和 50, p. 66.

만 自己의 本質을 捕捉할 수 있는 것일까. 이 小説의 說話者 「私」라는 青年도 끝없는 善意와 誠意로써 「先生」을 흠모해 다가갔다. 결국에는 굳게 닫힌 「先生」이 門을 열었으나 「先生」은 이미 죽은 것이다. 「先生」은 遺書에 明治天皇의 崩御後<sup>29)</sup> 살아 남는다는 것은 「必竟時勢おくれた」<sup>30)</sup> 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 漱石은 이렇게해서 「私の個人主義」라는 倫理的 立場을 수립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私は此自己本位といふ言葉を自分の手に握つてから大變強くなりました。彼等何者ぞやと氣概が出ました。今迄茫然と自失してゐた私に、此所に立つて、この道から斯う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圖をして呉れたものは實に此自我本位の四字なのであります。……然し自分がそれ丈の個性を尊重し得るやうに、社會から許されるならば、他人に對しても其個性を認めて、彼等の傾向を尊重するのが理の當然になつて來るでせう。それが必要でかつ正しい事としか私には見えません。……其中には甚だ怪しいのが澤山あります。彼等は自分の自我を飽迄尊重するやうな事を云ひながら、他人の自我に至つては毫も認めてゐないのです。苟しくも公平の眼を具し正義の觀念を有つ以上は、自分の幸福のために自分の個性を發展して行くと同時に、其自由を他にも與へなければ濟まん事だと私は信じて疑はないのです。我々は他が自己の幸福のために、己れの個性を勝手に發展するのを、相當の理由なくして妨害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sup>31)</sup>

이처럼 漱石에 있어서의 自己本位 및 自己個性의 主張은, 責任과 義務가 따르는 他人에게 害가 가서는 안되는 어디까지나 倫理性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漱石은 猜忌, 背反 등 모든 惡이라고 불리우는 人間の 行爲를 단지 人間の 主觀的 意志의 문제로서 처리하고 있지 않다. 超越的인 運命의 장난으로 체념하고 있지도 않다. 人間の 惡은, 그에게 있어서 財産·戀愛·弟子 등 人間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함정으로써 人間을 誘惑하는 것이며, 급기야 人間の 罪는 發生하는 것이다. 이 罪가 생긴후, 罪意識의 作用은 人間の 至高한 良心이라든가 宗教心조차도 自由로울 수 없게 만든다. 늘 그 意識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죄책감일수도 있으며 보다 발전되어 새롭게 눈을 뜨는 순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主義にも酔へず、酒にも酔へず、己れの才智にも酔へぬ身を獨りで哀れに感じつつ。」<sup>32)</sup>

孤立無援의 生活을 보내야만 意識하는 人間像 「こころ」를 쓴 漱石에 있어서는 애당초 善人과 惡人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었다. 「造り付けの惡人は世の中にもない」<sup>33)</sup> 人間이 거기에 어떤 價値

29) 明治天皇(1852~1912)은 122代 天皇으로 維新을 완성했으며, 日本을 中央集權國家化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닦았다. 明治時代는 커다란 변혁기였으며, 위대한 時代이기도 한 明治聖代였다. 그런만큼 天皇의 逝去는 한 時代의 終末을 뚜렷하게 알리는 事件이었고, 藝術上의 온갖 價値체계가 붕괴해 버릴을 意味하기도 한다.

30) 『こころ』, p. 270.

31) 夏目漱石 「私の個人主義」 『夏目漱石集』 1권, pp. 401~403.

32) 『文藝讀本』 「夏目漱石, 『日本の思想家漱石』 (東京: 河出書房, 昭和53), p. 63.

33) 『こころ』, p. 229.

的인 意義를 부여하고자, 도회인·시골인, 옛 사람·지금의 사람 등등의 對立的 區分을 해 보아도, 그것은 外觀上의 區分에 지나지 않는다. 人間의 特別한 種類 즉, 善人·惡人은 없는 것이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 罪의 誘惑에 걸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우리 人間은 罪의 可能性을 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誘惑을 看破해서 瞬間 瞬間 피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自然의 生命을 自然 그 자체로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며, 자칫 放心해서 誘惑에 걸려들면 罪意識에 시달리게 되는 極端인 岐路에 늘 서 있을 뿐이다. 그것은 人間의 內面에 잠재해 있는 惡의 소질 즉 利己心, 질투 等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こころ』에서는 「K」의 偉大한 宗教心を 덕으로 해서 「K」의 人間을 畸形的인 고독의 深淵으로 빠뜨렸다. 「まじめであつた」 젊은 날의 先生으로 하여금 罪를 犯하게 한 것이다. 「何故、もつと人が 惡く生れて來なかつたかと思ふと、正直過ぎた自分が口惜しくうて堪りません。」<sup>34)</sup> 先生은 叔父에게 기만당해서, 많은 財産을 잃었다. 그때부터 人間에 대한 不信感을 품게 되었고, 自身의 영혼만은 늘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도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善惡·正邪 기타 소위 人間의 性格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실은 늘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같은 決斷·選擇의 結果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사랑때문에 친구를 죽인 自身과, 公의 戰爭에 몸을 바쳐 그 旗를 빼앗긴 乃木 대장과의 比較가 『こころ』에 제시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그 성질상 矛盾이 없지는 않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선 先生의 경우 「K」를 背反한 것은 극도로 意識的인 策略이었다. 이에 反해서 大將이 軍旗를 빼앗긴 것은 그가 重傷으로 인해 意識을 잃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후 大將은 戰爭·教育에, 35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國事를 위해 全力을 기울인 生活로 일관했다. 그러나 先生은, 父母로부터의 遺産으로 無爲徒食者의 生活를 하고 있다. 일단 죽음을 각오했던 大將으로 하여금 延命하게 한 것은, 어느 누구도 大將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明治天皇의 愛情어린 배려인 반면, 「死んだ積で生きて行かうと決心」<sup>35)</sup> 시킨 것은 다른 사람과 아무관계없이 그 自身의 아내에 대한 憐憫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의 本質을 추궁해 보면 그 두 사람의 生涯가 外觀상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根底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大將이 빼앗긴 旗가 天皇으로부터 친히 下賜받은 軍旗라면, 先生이 잃은 것 역시 天皇으로부터 始作된 明治의 精神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K」를 明治정신의 상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明治의 精神이란 모든 事物로부터 마음을 뺀 「自由와 獨立」이었다. 그는 自由에 의해서 「お嬢さん」을 사랑했고, 獨立의 젊은이로서, 不遇한 친구 「K」를 데려왔다. 하지만, 그가 「お嬢さん」에 대한 사랑때문에 自己自身속에 골몰해있을 때, 방심하지 않고 「K」에 대한 잔혹한 策略을 궁리하고 있었을 때, 이미 「お嬢さん」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젊은이, 「K」를 데려온 獨立의 學生은 거의 없었다. 그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함부로 날뛰고 있었던 非理性的인, 야비한 策略家만이 있었다. 大將이 그의 敵때문에 人事不省이 되어 있을 때 軍旗를 빼앗겼던 것처럼, 先生역시 그의 戀敵때문에 아주 理性을 잃었을 때 위임받은 自由를 잃은 것이다. 이 경우 그 戰場, 그 敵, 그 意識의 樣相은 다를지라도 두 사람의 立場은 그 만큼 위험한 함정으로 墮만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人間의 道徳인 단지 意識的인 人間의 意志로 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면 착각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34) 前掲書, p. 229.

35) 前掲書, p. 269.

先生の 아픈 告白인,

「けれども私は私の生きてあるかぎり、Kの墓の前に續づいて月々私の懺悔を新たにしたかったので  
す。」<sup>36)</sup>

이것에 통하는 거리를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旗를 빼앗긴 大將의 苦惱와 친구를 죽게 한 「先生」의 懊惱 그 雙方에 共通되는 悲痛한 人生의 事實을 생각할 수 있다. 大將의 크나큰 과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臣下라고 불러주고 돌봐준 天皇의 따뜻한 마음에 의지해서 그 적막감을 잊고 粉骨碎身할 수 있었던 것처럼, 先生역시 지울 수 없는 罪科에도 불구하고 男便이라고 믿고 「是から世の中で頼りにするものは一人しかなくなつた」<sup>37)</sup>라고 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것을 보람으로 孤獨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다.

「何處からも切り離れて世の中になつた一人住んでゐるやうな氣がして…… 淋しくて仕方がない。」<sup>38)</sup>

人間の 孤獨이란 根源的인 것이라는 事實의 상징, 그 진상을 『こころ』는 表面化하고 있다. 歴史的 行爲가 永遠의 상징이며, 經驗的 事實이 絶對的 法則이 되는 世界가 그려져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經驗을 있는 그대로 傳한 사실의 기록인 동시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教訓書라고 先生の 遺書는 始作되고 남겨진다. 『こころ』의 先生이 그 弟子에게 그의 過去를 말하겠다고 約束한 것은 弟子의 성실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私は死ぬ前にたつた一人で好いから他を信用して死にたいと思つてゐる。あなたは其一人になれますか。」<sup>39)</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극도의 人間 嫌惡家인 「先生」 자신도 모든 人間을 同類로만 바라볼 수 없었음을 示唆한다. 이에 대해 江藤 淳은 「所謂, 漱石의 微笑」<sup>40)</sup>라고 表現하고 있다. 죽음을 無意識적으로 豫感한 사람의 입가에 감도는 世上에 대한 마지막 관용인 것이다.<sup>41)</sup> 그리고 「私」와 「先生」의 만남은 人間の 孤獨이라는 것에 그 鄉愁를 共有한 宿命적인 만남이 明示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先生」은 人間 根源으로서의 孤獨의 典型이며, 人間の 根源에 孤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存在는 그 「淋しさ」라는 共通의 意識이 있는 것이다. 이 先生이라는 存在의 普遍性을 해명하기 위해서 「まじめに人生そのものから生きた教訓を得たい」<sup>42)</sup>라고 하는 青年 「私」가 必要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肉身을 죽음속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眞實을 제시한 先生の 愛情은 一生 꺼지지 않는 아내의 등불이 되었음에 틀림없으리라.

36) 前掲書, p. 265.

37) 前掲書, p. 268.

38) 前掲書, p. 268.

39) 前掲書, p. 202.

40) 江藤 淳, 『夏目漱石』, (東京, 講談社, 昭和54年), p. 135.

41) 前掲書, p. 139.

42) 『こころ』, p. 202.

그러면, 罪意識과 孤獨이라는 深淵에 걸쳐 있는 人間이 그 속죄방법으로 택한 自殺의 意味는 무엇을 內包하고 있으며, 明治精神과는 어떻게 결부되고 그리고 또한 未來로 이어지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 IV. 自殺과 明治精神 그 繼承

精神的으로 죽어있는 「先生」의 肉身의 終末은 自殺에 의한다. 그리고 이 自殺은 다분히 時代性을 띠고 있다. 「先生と遺書」의 根本 動機이며, 先生의 自殺을 설명하는 것은, 明治天皇의 崩御와 乃木大將의 殉死이다. 罪의 유혹에 주의깊게 抵抗할 뿐만이 아니라 罪의 存在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걸까. 漱石의 싸움은 막바지에 도달한 듯 싶다. 時代의 推移 天性的의 차이라고 「先生」은 설득하고 있지만, 弟子로 하여금 곤란한 문제를 남기지 않을 수 없다. 人間의 사랑 및 평화를 위해 이제까지 이룬 업적이, 人生의 한 戰爭에서 패했다고 해서 無가되어, 혹은 덧없는 꿈이 되어 사라져야만 하는것일까? 아내를 위해서 「先生」은 살아왔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돌연 明治의 終末과<sup>43)</sup> 함께 죽어간다. 先生에 있어서 「K」의 죽음 그리고 明治精神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明治精神에 殉死한다는 先生은 明治라는 時代를 묻어버리고 싶다는 漱石의 소망의 表現이기도 하다. 明治의 精神이란 「自由와 獨立과 自信에 충만된 시대」에 통하는 동시에 明治의 道義性·倫理性이라고 하는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文明開化로부터 격리된 者를 犧牲者로 해서 다시 文明開化의 물결을 탄 사람을 오염시켜야 한다는 時代的 상황 때문에 先生은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다. 作品 表面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作中人物의 생각 및 行動이 어디까지나 明治精神에 殉死한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 深層的으로 파악해 보자면, 漱石 自身이 明治 속에서 成長했으며, 극도의 鄉愁를 지닌 그러한 世界인 것이다. 漱石로서는 그 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기가 숨쉬어온 明治라고 말할 수 있겠다. 「明治はまさに余の時代」<sup>44)</sup>였던 漱石에 있어서 大正 三年에<sup>45)</sup> 가서 明治 全體를 조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明治의 精神을 말할 때 乃木大將의 問題·明治天皇의 崩御 그것을 강조해서 결부시키면, 國家라는 公의 개념에 접근하기 쉬우나, 또하나 「K」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의 죽음을 음미하지 않고 「こころ」를 論할 수 없을 것이다. 明治精神의 구체적 이미지로서 漱石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乃木大將이나 明治天皇보다는, 오히려 「K」라는 人物이 상징하는 明治 氣質이 아닐까 생각한다. 엄격하면서도 古風의 金욕적 내지는 求道者의인 외모를 지니면서, 內面世界는 몹시도 어두운 상실감을 지닌 그러면서 現代的 모습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그런 二重性을 지니고 있는 「K」라는 人間像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43) 表面的으로는 明治天皇 및 乃木大將의 逝去가 되었으나, 심층적으로 볼때, 自己本位精神에 회생이된 외로운 時代의 終焉이며, 이제까지 혼돈과 상충으로 사람들을 무력하게 했던 二重的의 모랄과의 결별이라는 회구를 내포하고 있다.

44) 「シンポジウム」日本文學, 夏目漱石(東京:學生社, 昭和50年) p.147.

45) 小説『こころ』를 쓰고 있는 時間的 位置를 가리키며 大正3年은 西歷 1914年이다.

「先生」의 殉死는 乃木大將에의 殉死라기 보다는 「K」에 대한 殉死로 볼 수 있다. 「先生」은 自己가 받은 苦痛이나 손해는 몇십년이 지나도 안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宿부의 배신을 잊지않고, 人間一般 심지어 自己自身마저 의심하고, 부정적 생각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先生」은 贖罪의식으로 蟄居生活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강렬한 苦痛의식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人間이며, 그런 의미에서 「K」와 「先生」은 같은, 기질 같은 精神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こころ」에서의 殉死는 어느 개인에 收斂되고 있는게 아니라, 明治 共同體라는 故郷의 意識에 결부된다. 죽는다는 것은 「K」의 곁에 돌아가는 거라고할 때 「K」란 漱石가 반복해서 使用하고 있는 어두운 過去의 問題이며, 死者라는 형상을 한 그러한 過去인 것이다. 그런 어두운 過去라는 것이 「こころ」에 의해서 「K」에 의해서 상징되고 있으며, 「先生」 自身の 죽음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明治 天皇의 서거는 當時 日本 國民에게 상당한 과문을 일으켰는데, 「こころ」에서는 「私」의 父親이라는 형태로써 說明되고 있다. 父親은 天皇이 앓고 있다는 소식을 新聞을 통해 접하고 있는데,

「おい、御覽、今日も天子様の事が詳しく出てある—勿體ない話だが、天子さまの御病氣も、お父さんのとまあ似たものだらうな。其ういふ父の顔に深い掛念の曇がかかつてゐた。…… 然し大丈夫だらう。おれの様な下らないものでも、まだ斯うしてゐられる位だから。」<sup>46)</sup>

이처럼 天皇의 병을 모든 국민이 걱정한다. 國民的 관심사인 것이다. 父親은 自身이 앓고 있는 賢藏病을 天皇의 病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天皇 崩御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父親은 新聞을 손에 들고 오열한다. 「ああ、ああ、天子様もとうとう御かくれになる。己も……」<sup>47)</sup>라고 自身の 죽음 역시 머지 않았음을 예감한다. 天皇의 崩御, 乃木大將의 殉死, 先生의 自殺, 여기에는 커다란 國民的 共同意識이 있다. 「こころ」에서 「先生」을 相對化하는 눈으로는 「奥さん」과 「私」가 있다. 「奥さん」의 視点과 「私」의 視点, 先生의 아내가 「어째서 남편은 내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sup>48)</sup>고 하는 아내의 視점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私」의 경우 先生은 상대화하고 記述하기 위해 있어야 했지만 아주 깊숙이 들어갈 때 결국 「私」는 他者일 수는 없다. 「私」에 대해 기대를 가져본다면, 가공의 他者일 뿐이며 실은 先生의 分身이라 보아야 옳다. 明治의 精神 역시 그 단어를 빌린 가공의 絶對라는 過去인 것이다. 明治精神에는 過去의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作品속에서 찾아 본다면, 人道·人間이란 어휘와도 불가분하다. 漱石 自身이 作家로 살아가는 이상 個人이란 것은 소멸된다. 自身の 意志는 時代의 證言에 속하며, 眞實은 人類라든가 歷史라는 벽에 새겨진다. 그런 意志가 없으면 作家된 意味가 없다라는 使命感이 이어져서 明治라는 한 時代를 묻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自己自身 大正이란 時代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총체적인 視点안에서 明治라는 한 시대가 끝났으며, 그것은 同時に 個人으로서의 漱石自身도 죽어간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한 가운데서 作家의 使命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時代를 眞實하게

46) 『こころ』, p. 210.

47) 前掲書, p. 211.

48) 前掲書, p. 191.

證言하는 것이며, 다음에 올 새로운 世代안에 진실을 새겨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私」가 『こころ』에서는 그 후계자로 設定되어 있다. 그 「私」는 결코 先生の 遺書가 말하는 바를 相對化할 수 있는 그런 人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 나가는, 時代의 증언을 그 나름대로 이어가는 하나의 담당자로 設定되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先生」은 遺書속에서 반복하며, 「私」世代와는 다른 世代의 人間이란 것을 단락단락마다 재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先生の 삶의 방식이 「절대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先生이 살아온 時代 또한 절대의 時代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作家는 先生을 상대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한 時代의 限界를 지니면서 살아갔다는데에 새로운 여지가 있다. 한 時代의 限界안에서 그 나름으로 그 時代를 좋게든 나쁘게든 다 살아간 한 人間이 여기 있다는 表現을 느낄 수 있다. 先生은 「私」 즉, 새로운 世代로서는 도저히 理解할 수 없을거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싶다는 강한 欲求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思想的으로 보편화해서 敎訓은 얻고싶다는 것이 「私」이지만 論理化, 敎訓化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밖에는 提示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傳達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다. 論理的으로는 모순되고 있지만 「사실이었으므로, 사실로서 자네에게 가르쳐준다」<sup>49)</sup>라는 類의 表現이 『こころ』안에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하나의 생생한 體驗, 「그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억해 달라”는 것은 “이해해 주겠지”와는 그 意味가 다르다.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생생한 체험이 하나의 完決된 總體로서 있다.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그런 바램이 있었던 게 아닐까. 遺書를 남긴 人間이 發한 말의 무게는 과장으로 볼 수 없다. (생명을 내걸고 쓰는 內容이므로). 그러므로, 이 作品의 깊은 인상이 있는 것이다. 확실히 明治가 完決하고 있다는 一面이 있지만 傳해줌으로써 이어지고 있다는 신뢰가 작용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私」에 대해 부연해 보면, 靑年 「私」가 卒業論文을 제출한 다음 「先生」과 散策할 때 郊外の 어느 花苑의 들에 들어가 쉬는 장면이 있다. 그때 이야기를 상기해 본다.

「先生の談話は時として不得要領に終つた。其日二人の間に起つた郊外の談話も此不得要領の一例として私の胸の裏に残つた。—あるとき遂にそれを先生の前に打ち明けた。—はつきり云つて呉れないのは困ります。」—「あなたは大膽だ。」「ただ眞面目なんです。眞面目に人生から敎訓を受けたいのです。」「私の過去を評いてもですか」—「あなたは本當に眞面目なんでしょうか。」私は過去の因果で、人を疑りつけてゐる。だから實はあなたも疑つてゐる。然し何うもあなたとは疑りたくない。あなたは疑るには餘りに單純すぎる様だ。私は死ぬ前にたつた一人で好いから、他を信用して死にたいと思つてゐる。あなたは其たつた一人になれますか。なつて呉れますか。あなたは腹の底から眞面目ですか。」<sup>50)</sup>

이 「眞面目(まじめ)」라는 주고받음이 집요할 정도이다. 이 장면이 없다면 마지막의 「先生と遺書」라는 章이 成立할 수 없다. 이 말을 土臺로 해서 『こころ』는 造形된 것이라고 여기겠다. 先生의

49) 前掲書, p. 270.

50) 前掲書, p. 202.

「私」에게 「실은 자네도 의심하고 있어」라고 말하다음 「그렇지만 자네만은 의심하고 싶지 않아. 의심하기엔 너무 단순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單純すぎる」의 意味는 先生이 지니고 있는 어두움을 모르는 「사랑의 罪」를 지적해도 알 수 없는 「先生」이전의 存在라는 一面이 있다. 오히려 「私」에게서 그런 「單純」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お嬢さん」에게서는 「純白」이란 것을 기대하여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려는 先生의 苦惱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懷疑란 것을 모르는 分裂을 모르는 때문지 않은 영혼들의 典型인 것이다. 人間을 신뢰할 수 있는 核을 「私」의 단순함에서 찾으려는게 아닐런지? 그러므로 「私」라는 存在는 知識人的 性질을 先生과 共有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表現해버릴 수 없는 또하나의 生活者에 通하는 要素가 있다. 背反한 叔父와 같은 人間이 아닌 「先生」의 父母가 代表하고 하숙집 未亡人의 처음부터의 신뢰에 나타나는 生活者가 지니는 無條件의 신뢰성에 통하는 「신뢰」에의 기대라는 것을 「私」에게서 구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私」라는 人間에게 자신의 魂이 깃들 것을 기대하고서 先生은 遺書를 쓴다. 「私」는 先生에게 있어 신뢰 가능성에 불과할 뿐, 說明되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결국 說明할 수 없는 가공의 他者라고 생각한다. 「私」의 이미지란, 다음 世代에 대한 希望, 단절된 감이 있으면서도 이어져려고 하는 希求의 문제가 되어있다. 「젊다는 것」 즉, 生命의 상징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私」라는 存在가 너무 단순해서 先生이 지닌 무게를 充分히 받아들일 수 없는 世界에 있으므로 先生은 거기서 뭔가를 希求했다고 볼 수 있다. 「先生」과 같은 世界에서 회의하다 離脫해 나갈 뿐의 存在였다면, 「先生」이 「私」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것은 없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世代로서의 「私」는 價值判斷의 能力은 있다. 「兩親と私」部分에 있어서 「私」는 父親과 先生을 비교하며, 先生이 他人이며, 여기있는 父親과는 피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분명 父親을 相對化하는 눈을 「私」는 지니고 있다. 「私」는 價值判斷을 할 수 있는 人間임과 同時에 「先生」은 「私」에 대해 아주 精確하게 比評해 줄 수 있는 存在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sup>51)</sup>

「君は今あの男と女を見て、冷評しましたね。あの冷評のうちには君が戀を求めながら相手を得られないといふ不快の聲が交つてゐませう。」「そんな風に聞こえましたか。」「聞こえました。」<sup>52)</sup>

즉, 「私」가 미처 意識하지 못한 部分을 意識하는 存在로서의 「先生」의 役割이 보이며, 이 앞의 인용부분도 先生의 「私」에 대한 비평일 수 있다. 明治의 기질이란 希求하면서도 뿌리치지 않을 수 없는 二重性을 지니고 있고, 그 二重性은 苦惱하는 近代人을 대량배출했다. 그러기에 앞으로 올 世代는 懷疑와 分裂을 모르는 ‘밝은 것’만을 아는 그런 「私」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過去를 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사실을 「眞實」로서 받아들이면서 自己의 世代를 밝고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K」·「先生」과 같은 삶을 마치는 人間이 생겨나서는 안된다. 「K」·「先生」은 과거에 속한 人物이며, 舊時代의 상징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K」·「先生」의 人生은 時代的 運命의 悲劇으로 볼 수 있다.

51) 『シンボジウム』日本文學』夏目漱石, p.159.

52) 『こころ』, p.186.

## V. 結 語

이제까지 『こころ』에 담긴 복잡한 주제를 時代의 問題와 더불어 추구해 보았다. 「私」라는 青年이 각 단편을 연결하고 있는 구성을 지닌 長編小説 『こころ』는 漱石의 다른 晩年の 作品인 『道草』 『明暗』 등과 더불어, 깊은 人生觀照와 넓은 人間愛의 思想을 엿보게 한다. 『こころ』는 人間の 本質 問題를 時代性과 결부시켜 전개함으로써 內容上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말았다. 그것은 明治時代를 「余の時代」로 살아온 作家 漱石의 個人的 歷史인 同時에 時代의 證言이기도 하다. 『こころ』라는 倫理的 一面을 지닌 이 小説은 全編에 걸쳐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데, 人間 마음의 생생한 不可思議를 응시하는 漱石의 눈이 「先生」 및 「K」의 自殺, 叔父의 背反, 사랑, 結婚 등 여러 樣相의 問題로 向해지면서, 人間內部인 自然(혹은 良心)을 向하게 한다. 漱石에 있어서 自然이란, 運命과도 通하는 것인데, 한번 일어난 事件은 그것이 人間을 계속 지배하는 것이며, 運命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私の自然はすく其所で食ひ留められてしまつた」<sup>53)</sup> 「かたづけられない」<sup>54)</sup>로 要約할 수 있는 人生의 複雜性, 不可思議에 대한 作家의 認識이 時代性과 미묘하게 엮어져 作品에 深度를 더하고 있다. 前近代의 倫理와 近代의 倫理의 상충, 나의 個性의 존중이 他人의 個性을 짓밟아야만 하며, 그로인해 모든 人間관계에서 떨어져나와 存在의 기반을 잃어가는 過程에서 自己 內部를 응시하게 되고, 다시 自己의 自然을 찾게 된다는 道程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 버린 故郷을 다시 찾아 확인하고, 또 다시 歷史 속에서 故郷과 自身을 물어버리고자 하는 希求는 속죄의 行動이며, 굴욕감의 단절이며, 새로운 時代를 맞이위한 준비등의 여러 낡은 形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文學作品이 그 時代의 產物로서, 時代를 반영한다고 볼 때, 近代化의 물결이 취약한 風土에 범람한 그 時代에 태어나서, 암울한 時代를 살아야 했기에 보다 積極的인 姿勢로 現實을 딛고 일어설 能力이 없었던 明治의 인텔리가 선택한 自殺이라는 行爲는, 作品 속에서 「時代의 推移」 「天性의 差異」로 說明되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先生의 自殺은 낡은 時代와 새 時代를 경계짓는 상징적 意味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보다 積極적이고 밝은 時代에는 「先生」·「K」와 같은 存在方式은 이미 뒤져 있는 시대착오적 悲劇으로 받아들여질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こころ』는 人間世界에 있어서의 眞實과 사랑이란 받아들여져야 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人間속에 內在한 本質的인 이고이즘이 여러 형태로 그것을 不可能하게 한다는 어두운 構圖이다. 漱石은 「신앙에 가까운 사랑」을 希求하는 高貴한 靈魂 안에서 일어나는 더더욱 피하기 힘든 背反, 孤獨이라는 悲劇의 情況을 피가 通하고 살아있는 人間の 구체적 삶을 통해서 전개했다. 人間の 삶과 運命의 苦惱스러움이 明治時代라는 當時의 時代的 분위기와 相乘作用을 하여 보다 深刻한 問題意識을 內包하고 있다. 즉, 『こころ』는 自己時代의 眞實인 近代化의 過程에 있는 日本 知識人들의 苦惱像과 취약성이, 人間の 根源惡이라는 本質과 함께 벌어지는 內面 드라마로서, 다음 世代에까지 歪曲되지 않은 채 事實로서 眞實 그대로 傳達되기를 바라는 어두운 世界를 具現한 作品이다.

53) 前掲書, p. 262.

54) 夏目漱石, 『道草』(東京: 築摩書房, 昭和36年), p. 364.

## 參 考 文 獻

- 夏目漱石, 『夏目漱石集』, 1.2.3권, (東京: 築摩書房, 昭和36)
- 佐藤泰正外, 『シンポジウム日本文學』 14권, (東京: 學生社, 昭和50)
- 『一冊の講座』 編集部編, 『夏目漱石』, (東京: 有精堂, 昭和57)
- 江藤 淳, 『夏目漱石』, (東京: 講談社, 昭和54)
- 實方 清編, 『夏目漱石辭典』, (東京: 清水弘文堂, 昭和54)
- 文藝讀本, 『夏目漱石』 1.2권, (東京: 河出書房, 昭和54)
- 磯田光一, 『漱石文藝論集』, (東京: 岩波書店, 1986)
- 片岡良一, 『夏目漱石の作品』, (東京: 厚文社, 昭和37)
- 竹盛天雄編, 『夏目漱石必携』, (東京: 學燈社, 1980)
- E·O· 라이샤워(鄭秉學譯) 『日本史』, (서울: 探究堂, 1982)
- 江藤淳, 『漱石とその時代』 1.2권, (東京: 新潮社, 昭和55)
- 吉田六郎, 『漱石文學の心理的探究』, (東京: 勁草書房, 1983)

## Summary

### A Study on Souseki-Natsme's "Kokoro"

*Kim Nan-hee*

In this paper, I have made an observation on Sōseki's novel "Kokoro" which represents a basic shape of human life, on the basis of the times he live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when viewed in the light of the whole Japanese history, the Meiji era, as a literary setting of this work, was that of a downright imitation of the west.

Under the good name of "modernization," a large number of intellectuals set about transplanting the western civilization to Japan. As a result, not only individualism but capitalism became wide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Furthermore, a lot of side effects arose from the modernization that was not spontaneous but forced downward by the government. Few intellectuals have, therefore, disagreed on the conclusion that the Japanese civilization was of superficiality. Of the people who were bold enough to tackle the realities of the period, Natsumesōseki has been often cited as the greatest. He was the only writer who had made life-long efforts to illuminate the current problems.

On the whole, "Kokoro" is the novel which dealt with dark aspects of the period. It illustrates and anguished intellectual who is obsessed with the consciousness as a victim and offender of the civilization, who has to shake off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that still appeals to his mind, and who expiates his sin with abandoning his identity and prepares for the new age even with internal feeling of humiliation.

Such characters as "Sensei" and "K" become subjected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premodern morals and the modern morals, finally finding peace in death. However, the current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as well as vividly transferred by "Watashi" who stands for the oncoming age, in order to create a bright generation that will not experience skepticism or disruption. In other words, it is emphasized that the past must be recognized as it is and not fall into oblivion. The writer seem to have paid attention to the current problems with assumption that new generations aspire to live on new energies which may be symbolized by 'simplicity' or 'pure whiteness.'

Now, it may be concluded that "Kokoro" makes inquiries into human nature motivated by the social atmosphere. The intellectuals in this novel represent those who failed to overcome the dual morality – becoming the victims of the civilization – during the Meiji era that suffered a premature influx of the western civilization.